



**예술, 시대의 각인:  
대안공간 루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큐레이터 라운드 테이블 녹취록**

## 예술, 시대의 각인: 대안공간 루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큐레이터 라운드 테이블

일시: 2019년 2월 22일 오후7시

장소: 대안공간 루프

참석: 고낙범, 김노암, 김미진, 김현진, 민병직, 문두성,  
서진석, 안성열, 양지윤, 윤진섭, 임종은, 홍성민

**양지윤** <예술, 시대의 각인: 대안공간 루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공개 행사인 <큐레이터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안공간 루프 20주년 동안 루프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큐레이터들을 이번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진석 관장이 모더레이터로 진행하는 1부에서는 큐레이터들이 루프와 맺었던 인연과 과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하는 2부는 루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 큐레이터로서의 실천에 반영이 되는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는 1999년 2월 6일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대안공간은 외국에서는 Alternative Space, Art Initiative, Arts in Learn Center, Independence Center 등 이러한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역사성을 따지면 60년대 말, 70년대 서구에서 비주류 문화 운동이 있었을 때 히피 운동, 비트운동, 여권신장운동, 인권운동, 6.8운동 등이 있었고, 비주류 문화들이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등의 이런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서구에서 대안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권 기관인 PS1, 뉴뮤지엄도 처음에는 대안공간으로 시작되었고, 화이트 컬럼도 유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안공간’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것은 루프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Alternative Space라는 용어의 한국어 표현에 대해 홍성민

선생이 ‘대안’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의 한국 미술계와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대안성’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대안이란 것은 항상 변화합니다. 1999년,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는 1989년도에 여행, 유학 자유회가 시행되면서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갔고, 그 유학생들이 IMF를 계기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미술 대학의 세 축인 홍대, 이대, 서울대의 파워 카르텔이 해체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원예대, 경원대, 한예종 등 제3세대 대학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작가 중심에서 큐레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홍대 예술학과가 80년대 후반에 생겼고, 이후 미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과가 만들어지면서 젊은 큐레이터들이 급부상했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개방되면서 영화, 자동차 산업, 금융 시장도 함께 개방되었습니다. 세계화 물결이 태동되면서 한국 미술계가 국제화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되면서 대안공간도 이러한 흐름과 함께 태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관 화랑의 비율이 90퍼센트가 넘었고, 나머지 10퍼센트 안에 상업화랑, 국공립 미술관들, 비영리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모토 하에 루프가 만들어지고, 풀, 쌈지, 사루비아가 연이어 생겼습니다.

루프 초기에 기획 위원으로 전시를 기획했던 홍성민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당시 홍성민 선생은 루팡, 홈즈 등 필명을 사용하여 저항적인 글쓰기를 시도했고, ‘융복합’이라는 말이 없던 시기, 융복합적 퍼포먼스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민** 루프 20주년 행사 소식을 듣고 ‘루프가 20년 밖에 안되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 서진석 관장이 ‘카페 겸 작업실 겸 갤러리’라는 이상하고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대안공간’이라는 말이 없었고 Alternative Space, Non Profit Space 이 두 개의 용어만 있었습니다. 대안공간, 대안성이라는 개념, 또는 어떻게 Non Profit 공간을 운영해야 할지 등의 언어가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던 개념이라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재미있었는데, 기관의 관

장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들, 심지어 당시 예술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현진 등 7-8명이 모여 루프를 오픈했습니다. 이후 불과 1-2주 만에 아트스페이스 풀이 오픈을 해서 루프, 풀 이렇게 두 곳이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대안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풀은 공부를 많이 하는 집단이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대안공간이란 무엇이고, 풀이라는 것을 어떻게 끌고 나아가겠다는 등 고민을 많이 한 팀이었습니다. 풀은 불과 열흘 차이로 루프에게 첫 대안공간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프와 풀이 ‘대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답을 찾고자 글을 쓰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대안에 대해 언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개념을 넣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례사 같은 기존의 전시 서문과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악담을 써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작가들이 싫어해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풀과 루프의 차이점은 풀의 첫 전시가 최정화, 정서영, 박이소였던 반면 루프는 더 젊은 작가들인 임민욱, 정수진, 정연두, 오인환 등 국내에서는 첫 시도를 하는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루프와 풀은 어떻게 대안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서진석** 백남준 선생의 우연성, 즉흥성, 과감성, 실험성 등은 얼핏 루프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글들을 보면 루프가 초창기 4-5개의 전시에서는 실명을 안 밝히고 루팡이라는 필명으로 무조건 작가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결국 작가가 전시를 못 하겠다고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지만 기존의 전시 형식과는 다른 재미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김미진** 제가 홍대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홍대 주변에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출신의 네 명의 기획자들이 ‘대안’이라는 자유로운 컨셉으로 작은 공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마흔이었는데, 젊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루

프 외에도 풀, 쌈지, 스페이스 휴, 홍대 앞 프로젝트 등이 있었는데, 그 시절 홍대 앞에는 레코드 샵, 클럽 등 예술적인 맥락을 가진 작은 샵들이 많았습니다. 지적인 젊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젊음이 활발하던 시기, 어떻게 하면 홍대 앞 문화를 좀 더 큰 로드맵을 가지고 끌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했습니다. 서진석 관장은 초창기 루프의 네 명의 기획자들 중 한명으로 혼자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지요.

**서진석** 윤진섭 선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80-90년대 우리나라 미술계는 민중 계열과 앵포르멜 계열 이렇게 두 축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단색화 기획을 직접 이끌어갔습니다. 과감히 말씀드리자면, 대안공간이 그 두 축 사이를 메꾸는 역할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풀은 조습, 임흥순 등 포스트 민중 미술과 연관된 전시를 많이 했었고, 루프는 이동기, 강영민 같은 다른 개념의 포스트 민중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팝아트가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결합된 사회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공간이 당시 양분되어 있던 앵포르멜 계열과 민중 계열의 사이를 메꾸는데 어느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럼 한국 미술의 다른 한 축인 앵포르멜 단색화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윤진섭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진섭** 돌이켜보니 99년도는 굉장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평론, 전시기획을 하지만, 76년도에 작품활동으로 데뷔해서 77년도에 ST그룹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0여 년간의 흐름을 보자면, 단색화라는 것의 본격적인 활동은 72년 1회 양데팡당전에서 하나의 조짐이 나타나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80년대 초반까지 옵니다. 반면에 민중 미술은 70년대에는 전혀 태동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69년도에 어떤 조짐이 있었는데 ‘현실 동인’이라는 것이 서울대 회화과 학생들 중심으로 김지하 시인이 선언문을 쓰고, 오윤, 임세택, 오경환 등의 작가들이 전시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교수의 제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80년도 ‘현실과 발언’이 결성되고 나서 80년대 민중미술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70년대 후반은 두 흐름이 만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시기획을 전문 기획자들이 하고 있지만 그때는 작가들이 했



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사동의 관훈 갤러리 쪽에서 작가들이 10여 개 남짓한 갤러리들을 대관해서 기획할 때입니다.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작가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전시를 할 때니까요. 80년대 중반에도 그런 상태들이 지속됩니다. 87년도에 ‘뮤지엄 그룹’이 유명했는데, 제가 94년 신세대 미술에 관한 월간미술 원고에서 ‘뮤지엄 그룹이 신세대의 최초다.’라고 밝혔습니다. 99년도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당시 사회적인 변화, 즉 해외여행 자유화 같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어가면서 한국미술이 국제화되는데, 대안공간이 큰 초석을 만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중 대안공간 루프는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대안공간 루프 출신 작가들이 비엔날레나 국제적인 행사에서 현재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루프에서 <디지털 트라이앵글: 미디어 아트 투데이 인 코리아, 차이나, 재팬>전의 공동 기획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큐레이터 이원일 선생의 작고 5주기를 맞이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중일 작가들을 초대해 만든 전시였습니다.

**서진석** 90년대는 서구 주류 미술계와 한국 로컬 미술계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대안공간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는 과정에서 그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의 대안성은 로컬의 대안성이 아니라 세계 미술계 안에서의 대안성입니다. 간극이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예전 90년도에 작가 포트폴리오가 들어오면 큐레이터들이 작가들 학교를 알아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유학파와 국내파를 맞추는 게임을 하면 90퍼센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간극이 전혀 없습니다. 김노암 선생은 아트스페이스 휴 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또 다른 대안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작가 이면서 기획자였습니다. 99년도 루프에서는 <마법의 시각>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김노암 선생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미술 매개 공간에서 활동을 했고, 대안공간도 직접 운영을 해왔는데, 실천하고자 했던 점들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김노암** 저는 99년도에 사비나 갤러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비나는 미

술관이 되기 전 상업 화랑이었습니다. 저는 작품을 파는 기술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밤만 되면 동료 작가들, 기획자들과 술 마시러 다닐 때였어요. 루프가 오픈하면서 자주 놀러 갔었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뀐 <독립미술제>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루프, 풀, 쌈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플랫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아트스페이스 휴라는 공간을 쌈지와 루프 사이의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쌈지, 휴, 루프 이 세 개의 공간이 연결 되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안성에 대해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공간을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반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모아서 다른 작가들과 대관료를 내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를 도와주고 글을 써주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다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즐겁고 좋은 시절을 보냈었구나, 한 때를 같이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석** 김현진 선생은 홍성민, 임산 선생과 함께 공동으로 전시를 만들어가는 루프의 첫 기획 공동체 멤버였습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디렉터로 선정되었는데, 당시에는 홍대 예술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술학과가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오래된 학과는 아닙니다. 90년대 작가 중심에서 큐레이터 중심으로 미술계의 판도가 바뀌는 시기에 예술학과, 미학과, 미술사학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현진 선생의 글쓰기, 대안적 실천, 대안성 등이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현진** 루프의 시작과 함께 저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20년이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글쓰기를 할 때 익명 안에서 자유로운 관점을 펼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여러 언더그라운드 신의 전복성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여러 익명들을 썼습니다. 99년은 한국의 대안공간 역사에서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2월에 풀과 루프가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대안공간의 위치와 다양성을 보면, 풀의 경우 정치적인 위치를 더 명확하게 갖는 맥락이 있었고, 루프는 90년대 전반과 중반부터 홍대 앞에 형성되어 온 언더그라운드신과 미술신의 접점을 이루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직 선생, 임산 선생 그리고 저는 대학원 때부터 공동으로 전시기획을 하거나 학내에서 전공을 넘나드는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언더그라운드 신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이론이나 크리티컬 스터디의 방법론을 미술, 시각예술에 도입했던 영역들에 관한 스터디가 기반이 되어 루프의 초기 기획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활동 중이던 작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던 시점이었습니다. 루프 초창기에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임민욱, 함경아 같은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루프의 초기 기획들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열악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작가들과 같이 작업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2년 저는 루프에서 <리얼리티 바이트> 전시를 기획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유럽에 가게 되면서 자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홍대에서 많은 공간들이 떠났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루프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축하하고 싶고 계속해서 30주년, 40주년 이어가길 바랍니다.

서진석 초창기 루프 시절, 홍성민 선생, 김현진 선생, 임산 선생, 강영민 작가가 테이블에 포트폴리오들을 올려놓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작가를 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작가를 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그것이 아마 다른 공간과는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홍대라는 공간은 다양한 문화의 언더그라운드 신이 존재합니다. 루프에서도 허벅지 밴드와 같이 공연을 하거나 하상백 작가가 패션쇼를 하는 등 다양한 융복합적 시도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안성열 선생, 임종은 선생, 민병직 선생을 통해서 과거를 넘어서 현재의 대안성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터십을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지윤** 서진석 선생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프를 설립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서진석** 사실 저는 개인전을 했던 작가였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들고 전시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당시에는 대관화랑 밖에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에 150만원을 주고 신사동에 있는 대관화랑에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내가 공간을 만들어 보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마음 맞는 몇 명이 모여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돈의 딱 세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생공간과 대안공간은 출발점에서 겪은 생태계가 달랐습니다. 대안공간이 시작하던 시기에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라, 인사동이나 홍대 같은 지역에 공간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우편발송, 이메일 전송까지 어떠한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양지윤** 민병직 선생은 루프에서 2002년 <리얼리티 바이트> 전시를 기획했고, 이후 2014년부터 루프의 바이스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두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런 것들이 2015년에 진행했던 전시들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병직**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 쪽에서 일한지가 20년 정도 되어가는데, 루프와 시간이 비슷하게 겹칩니다. 저는 처음부터 루프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여기서 일을 한 것은 2014년도 겨울부터였어요. 저의 미술이 미시적인 역사에서 많은 부분들을 호흡했기 때문에 제안 받았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미술신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론적인 쟁점과 대안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동료 기획자, 작가들과 많이 했습니다. 2015년부터 루프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 미래적인 대안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미래적 대안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대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상투적이고 관성화되었기 때문에, 루프 앞이 아니라 뒤 혹은 옆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루프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안 하려고 했던 전시들을 대안공간에서 시도했습니다. 과거가 미래가 될 수 있는 고민들을 했고, 시간순으로 대안에 대해 규정하기 보다는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의미의 시간성을 섞는 동시에 루프의 어떤 '대안적인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프는 20년이라는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전처럼 막연하게 대안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자리매김하고, 미술사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루프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겠지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신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루프에서 활동했던 기획자들의 고민과 소통, 모색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양지윤** 안성열 선생은 2002년부터 루프 초창기 기획자로 1년여간 활동했습니다. 작년까지 열린책들에서 인문도서 편집 주간으로 근무하셨는데요. 현대미술계에서 출판계로 활동의 범위를 이동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서 기억하는 루프, 혹은 지금의 루프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열** 미술계를 떠난 이유는 그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술판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생계가 곤란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답입니다. 다른 이유는 기획자로서 작품에 대한 글을 쓸 때 시각을 언어로 옮기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에 스스로 곤란함을 느끼고 있

었습니다. 불만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계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루프에서 같이 전시했던 작가들의 이름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의 대안공간 루프가 ‘대안공간’이라는 말에 교차하고 싶은 욕망, 전복 혹은 양립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현재 혹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지윤** 고낙범 선생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로 6년간 근무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떠나서,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부터 홍대라는 지역에서 행해진 많은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즐기고 참여했지요. 초기부터 루프의 기획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들과 작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획자의 삶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낙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언어화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 자신의 삶과 유사한 궤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대 서양화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큐레이터를 뽑는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시험을 봤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직장이 필요해서 응시했는데 그게 큐레이터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공부를 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한국 미술계가 오픈되고 국제화되면서 미술계가 많이 바뀐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전공으로 하고 전시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미술 운동의 흐름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오랜 기간 할 수 있었습니다. 홍대 지역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고, 90년대에는 이곳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동네에 미술 기관인 루프가 생긴다고 해서 구경하러 오곤 했습니다. 제가 큐레이터를 그만두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소박한 작가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던 시기였는데, 그때 마침 루프가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 오픈할 때부터 드나들던 루프가 이렇게 한국 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떤 무브먼트가 있으면 중심에서 참여하는 성격이 아니고 주변 언저리에서 맴도는 성격입니다. 루프의 활동들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어떤 시점을 유지하면서 있었습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나름 보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한국 미술계는 흑과 백,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루프가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의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성향과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루프가 많이 했습니다.

**김노암** 대안공간의 디렉터 중에서 서진석 관장이 특히 탈권위적입니다. 예전에는 작가들이 전시하려면 대관화랑에 돈을 내거나 상업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전시하려면 시스템에 순종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강요 받았습니다. 작품이 잘 팔리거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 데뷔하는 작가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루프같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데뷔하는 작가들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아, 내가 작가구나.’라고 대접받는 느낌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양지윤** 임종은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루프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오리엔탈 메타포>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동양화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학술강연을 함께 진행했었지요. 루프에서의 큐레이터 경험이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과 어떤 연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임종은** 낭만성, 실험 그리고 무한한 헌신 등 루프에서의 경험이 독립 기획자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루프에 대한 기억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1999년 극동방송국 쪽에 나무바닥의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루프의 전시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 루프가 제시한 방향에 대한 공감과 기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루프가 현재의 건물을 지으면서 ‘대안이 뭘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안공간처럼 생기지 않은 건물 때문이었죠.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아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두 개의



축이 루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있는 아시아의 작가들, 큐레이터들도 그 때 만났습니다. 당시 쌈지, 휴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큐레이터로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지윤** 루프라는 공간이 20년이 된 만큼 다양한 세대의 큐레이터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참여한 분 중에 가장 젊은 문두성 선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두성 선생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루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젊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미술계 전시 기획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설치라는 현장 업무를 서진석 관장에게 도제의 방식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자신의 세대가 갖는 큐레이팅의 방법에 대해 스스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두성** 저는 2012년에 루프의 인턴으로 시작해서 코디네이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를 거쳐 큐레이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작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고 작업에 도움을 준다는 행위 자체가 좋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하며 몇 년을 근무하다 보니, 지금은 전시 기획부터 설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담론을 만들어 내는 대신, 전시의 제작 현장에서 페인트, 목재 고르는 것부터 예산 짜는 것, 작가 선정, 글쓰기, 미디어 설치, 영상 편집까지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경험했던 즐거운 기억입니다.

**양지윤** 저도 루프에서 큐레이터로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루프는 큐레이팅이라는 전방위적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큐레이터 교육의 학교였습니다.

**김미진** 루프 20주년이 있기까지 서진석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 그리고 양지윤 루프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진석 관장이 30대 초반이었던 99년부터 지켜보면서 친구처럼 지내왔는데, 그때 함께 했던 다른 분들은 경

제적인 이유와 각자의 이상에 대한 문제로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 후 서진석 관장이 홀로 루프를 끌고 왔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큐레이터, 작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지만 가장 큰 헌신은 서진석 관장이었습니다. 시간 강사를 해서 번 돈으로 루프에 쏟아 붓고, 편집증 환자 처럼 몰두하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채로 잠이 들었던 서관장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많은 분들의 협업 시스템이 돈을 벌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노동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그런 개인의 열정이 모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20주년 아카이브 전시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미술계의 젊은 작가, 큐레이터, 서관장의 노력과 헌신이 합쳐져서 루프를 만들어냈어요. 루프를 기반으로 활동한 큐레이터들이 모두 앞으로 열정적으로 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서진석** 제가 지금은 아트센터에 있지만 대안공간을 십수년간 운영하면서 공간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비전과 이상만으로는 일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운영 시스템이 확립 되어야 하고 다음은 기획 시스템, 그 기획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적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제 경우에는 주위에 운영의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비주류였습니다. 홍대, 서울대도 아니고 이대도 아니고 그 당시 3세대 대학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홍성민, 김현진 같은 좋은 기획자, 운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안은 제가 루프를 떠나 백남준 아트센터로 옮기면서 현재 루프는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년 넘게 준비되고 있는 법인 설립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루프와 그간 관계를 맺었던 작가, 기획자, 미술 관계자들이 흔쾌히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90여명의 회원이 모인 상태입니다. 대안공간의 기본 전제는 독립성과 실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은 정치 권력이

나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가지가 전제 되지 않으면 대안공간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2년 전부터 법인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법인체제 전환 후 공공을 위한, 하나의 공공체 개념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양지윤** 전시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전시나 행사에 따라 관객층의 변동폭이 상당히 큼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전시는 20대 여성이 주로 관람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층이 확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에는 루프의 지난 20년간의 전시들을 관람하지 않은 학생층 관객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관객이 느끼는 대안공간의 역사는 그것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20대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질문 1** 저는 1999년생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에겐 융복합은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유가 넘쳐나는,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 현시점에서 루프가 어떻게 입지를 다져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저는 사진을 위주로 하는 갤러리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공간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프에서는 1년의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지윤** 미술계에 대한 큰 편견 중 하나가 전시기획이 끼리끼리 이루어진다. 소위 말하는 '큐레이터와 사적 교류를 통해 작가 선정이 이뤄진다.'라는 비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루프가 매년 진행하는 작가 선정의 방식은 공모입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독립 큐레이터의 기획전 공모도 시작했습니다. 전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지원을 하고 민주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선정을 한 뒤, 전시를 개최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침입니다. 2019년에는 신진작가 개인전

이 두 번 있고, 대만에서 활동하는 독립기획자의 기획전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작가 개인전으로는 함양아 작가의 전시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1년에 8개 정도의 전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